

한국 '글로벌 혁신' 세계 2위

美BCG 분석...1등 상품·수출 증가율 부문서 높은 점수

글로벌 컨설팅회사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지난해 각국의 혁신 수준을 조사한 '글로벌 혁신 지수(International Innovation Index)'에서 한국이 110개국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BCG와 전미제조업협회(NAM) 그리고 산하 연구기관인 제조업연구소(MI) 등이 함께 협회 회원사 경영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110개국과 미국 50개 주의 혁신 수준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재정정책, 교육정책, R&D정책, 지적재산권정책, 혁신환경 등의 요소를 투입해 특허출원, R&D 실적, 노동생산

성, 주주수익률 등을 얼마나 산출하는지 계량적으로 측정해 결과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세계 1등 상품 개발과 수출증가율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이어 스위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등이 상위권에 들었다. 일본은 9위에 머물렀다. 미국은 8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금융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도 다른 국가들로부터 혁신 경쟁력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CG는 성공적인 혁신의 요건으로 아이디어 창출, 리더십, 속

련된 인력 등을 꼽고 정부가 효율적인 정책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BCG 서울사무소 이병남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 기업의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 고무적인 성과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다른 나라와 점수 차이가 크지 않고 조사 시점이 선진국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지난해 가을이라 혁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기업의 혁신 노력과 정부의 지원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규식 기자